

MARU

Interior Design Vol.55 NOVEMBER 2006 www.maruid.co.kr

SPECIAL ISSUE | Being Space and Brand Space

FOCUS | 강가선릉점

THEME ISSUE | 디자인 메이드 2006 · 2006 서울디자인 페스티벌

OVERSEAS INTERIOR | 스튜디오 가이아

INTERIORS | 카츠야 · 서초준안과 · 식스티호텔 · 민나노이에

ARCHITECTURE | 광주햇살가득어깨동무어린이집

HOME INTERIOR | 나폴리의 집

LIVING DESIGN | 에고 · 비노바





젊음과 자유를 느끼다

SIXTY HOTEL 식스티 호텔

디자인 스튜디오 63 아키텍처 앤 디자인 위치 이탈리아 리치오네 비아 밀라노 54번지 건축주 위치 하산 디렉션 지지엔에이 사진 야엘 핑쿠스

Design Studio 63 Architecture and Design Location Via Milano 54, Riccione, Italy Client Wichy Hassan Direction of the Work GZ&A Photograph Yael Pincus

1 23

- 1 3. 달걀 모양으로 돌린 창문으로 트랜드한 조명이 새어나오는 식스티 호텔 외관
- 2 식스티 호텔 1층에는 미스 식스티와 에너지 부티크가 있다.
- 1 3. Sixty Hotel Facade
- 2 Miss Sixty and Energie Boutique





1 2 3

1. 2. 3. 로비의 세련된 패턴으로 장식된 그래피티들은 평키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1. 2. 3. Sixty Hotel Lobby



식스티(Sixty) 호텔은 이탈리아 리치오네 지역에 위치한 부티크 호텔이다. 식스티 그룹의 공동 설립자인 위치 하산과 레나토 로시는 지난 7월 이탈리아 로마나 해변의 리치오네에 부티크 호텔을 오픈했다. 이 첫 번째 호텔의 오픈은 2천여 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전 세계 7천개의 샵과 지난해 640달러의 거액액을 완수하는 식스티 그룹의 브랜드 확장을 보여준다.

식스티 호텔의 대표이며 아트 디렉터인 위치 하산은 호텔을 고객들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친근한 장소로 만들고 싶었다고 한다. 이에 식스티 그룹은 1,890만 달러를 투자해 1년 반 동안 기존의 호텔을 달걀 모양의 창문과 트렌디한 조명, 개성이 넘치는 벽, 유명 디자이너의 최신 가구 등 외부와 내부를 젊고 활기가 넘치는 스타일로 변화시켰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스튜디오 63 아키텍처 앤 디자인에서 맡았다. 호텔 내부의 바와 레스토랑은 트렌디한 여행객들의 만남의 장소인 리치오네의 유명한 거리 비아 밀라노와 마주하고 있으며, 1층의 샵은 리미티드 에디션을 비롯한 미스 식스티(Miss Sixty)와 에너지(Energie) 부티크가 입점해 있다.

호텔은 평키하면서도 감각적인 장식물들, 세련된 컬러, 초현대적인 디자인과 디자이너들의 자유분방하면서 창조적인 그래피티가 얽매이지 않는 감성적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 재미있고 위트가 넘치는 독특한 스타일을 만들어 내기 위해 하산은 30명의 젊은 아티스트들을 영입했다. 이들은 로비를 비롯한 객실, 테라스, 계단, 레스토랑 등의 공간에 현대적이면서 개성이 넘치는 디자인들을 선보였다. 아시아, 유럽 등지에서 선출된 이 디자이너들 중에는 한국 디자이너 'T-Yong'도 포함되어 있다. 각각의 공간들은 자신만의 매력적인 스타일로 시선을 유도하여, 미스 식스티, 에너지의 고객들을 내부로 끌어들이고 있다. 40개의 방에는 웹(Web) 캠이 설치되어 고객들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돕는다.

식스티 그룹은 향후 3년간 많게는 6개 호텔을 더 오픈할 예정에 있는데, 두 번째 식스티 호텔을 바로셀로나, 두바이, 로스앤젤레스 등에서 오픈할 계획이다. M

취재 임윤정 기자 bluesky@maruid.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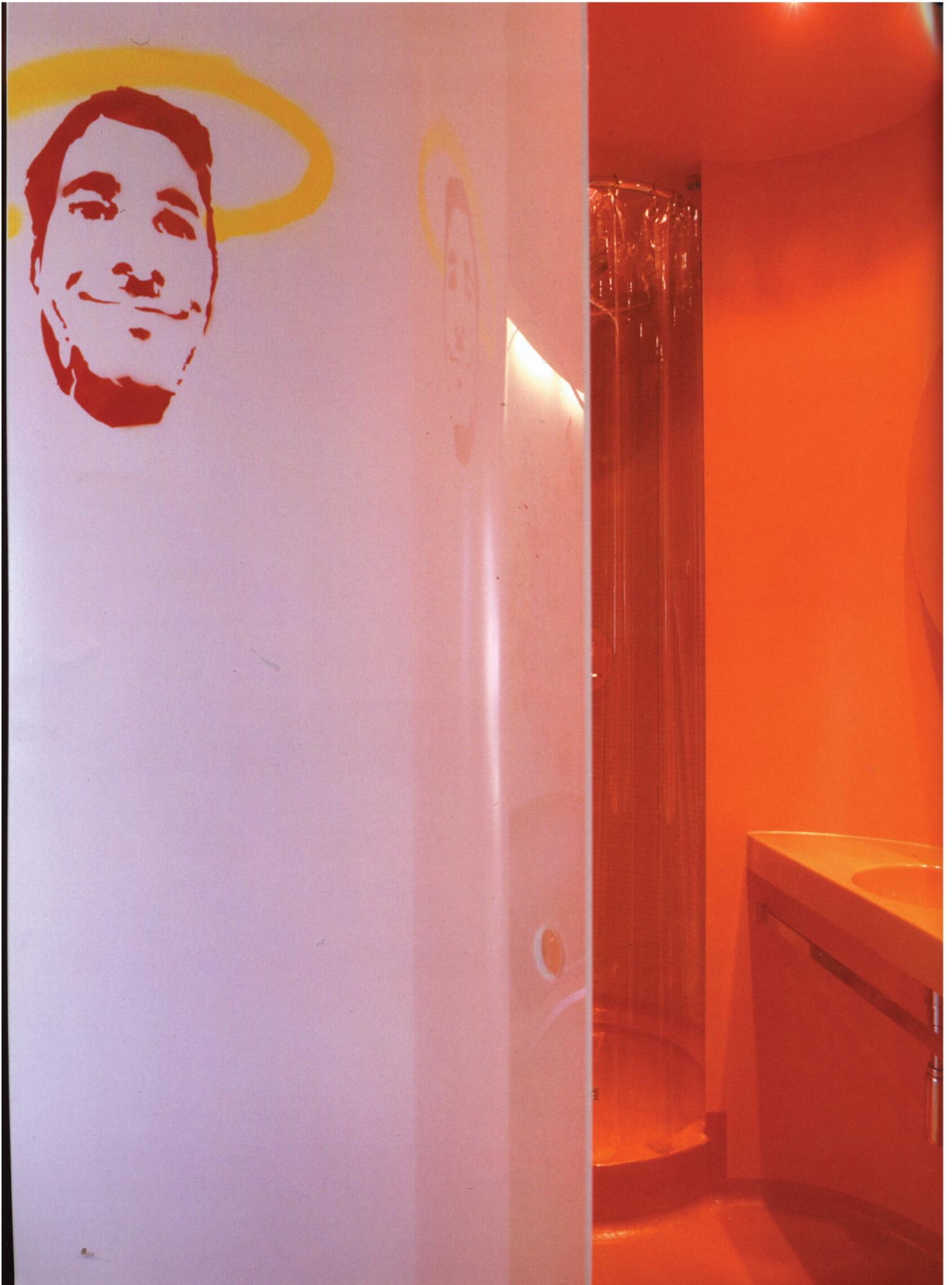
19th of June has been inaugurated the first of the Sixty Hotels dedicated for guests under 30. Located on the Riccione shoreline the owner and founder of Miss Sixty, Wichy Hassan, together with Studio 63 Architecture and Design have created the hotel with funky colors, graffiti and a cutting edge design that seems to be taken out of a video clip. 25 different artists were invited to express themselves in every room, creating 40 different art pieces and giving each room it's unique and individual atmosphere. The double facade is a play of different images and colors, projections and lighting, changing throughout the day creating different ambient and scenes.

A complex lighting system illuminates the corridors as well. Constantly changing colors creating different moods and scenes along the day and night. All 40 rooms are equipped with a web cam allowing the young guests to communicate between them, creating a 'community friendly' hotel.



- | | | |
|---|---|---|
| 1 | 2 | 3 |
|---|---|---|
- 1. 2. 트렌디한 조명의 통로
 - 3. 디자이너의 개성적인 그래피티가 새겨진 스위트 룸
 - 1. 2. Corridor
 - 3. A Hotel Suite







1 2

1, 2, 오렌지 컬러의 조명과 재미있는 그래픽이 어우러진 스위트 욕실

1.2. Suite Bathro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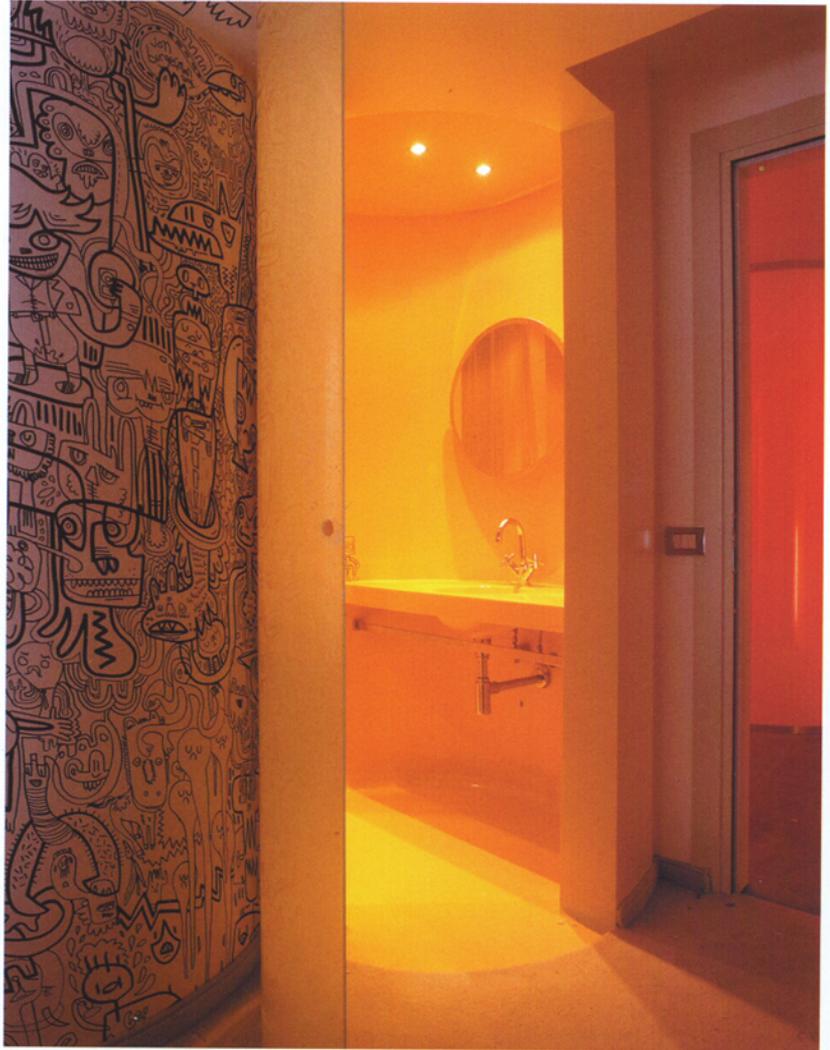
평면도 / Floor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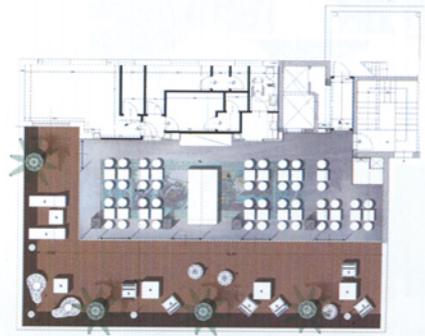
1 2

1. 2. 입구에서 시작되는 벽에 만화적 상상력이 가미된 낙서같은 그래피티가 재미를 준다.

1.2 Sixty Hotel Room



1층 평면도 / Ground Floor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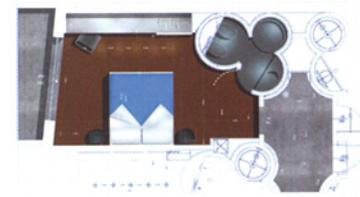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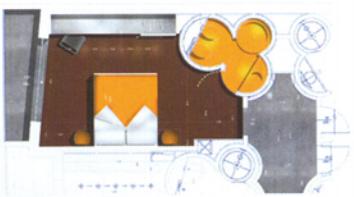
5층 평면도 / 5th Floor Plan



1	2
---	---

1. 자극적인 언어들과 세련된 조명이 있는 방은 맞은편 거울로 인해 넓어보인다.
2. 역대 6마리가 그려져 있는 그래피티는 보는 이들에게 즐거움을 준다.

1. Sixty Hotel Room
2. A Hotel Suite



평면도 / Floor Plan

